

하혜진 “봄 배구 목표…팀 전력에 도움되도록 최선”



여자프로배구 페퍼저축은행 AI 페퍼스의 창단 멤버 미들블로커 하혜진이 ‘강한 마음’으로 시즌을 준비하고 있다.

광주시 서구 페퍼스타디움에서 만난 하혜진은 “2025-2026 시즌 해야 할 일이 많다”라며 비장함을 드러냈다.

지난 4월 자유계약(FA) 시장에서 페퍼스 잔류를 선택한 하혜진은 “장소연 페퍼스 감독님께서(본인을) 믿고 한 번 더 해보자고 하셔서 팀에 남기로 결정했다”라며 “그동안은 매 시즌 감독님이 바뀌었는데, 장 감독님과 올해로 2년째 함께하면서 좀 더 강한 마음으로 임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하중화 현대캐피탈 스카이워커스 감독의 둘째 딸 하혜진은 고향은 서울이지만 초등학교 5학년 때 경

“감독님과 2번째 시즌…좀더 강한마음으로 준비”
경기당 블로킹 성공 3개 목표로 집중해서 연습

남 통영의 유영초에 입학하며 본격적으로 배구를 시작했다. 선명여고 재학 시절 2014 춘계 전국남녀 중고배구연맹전 우승을 이끄는 등 배구 유망주로 이름을 알렸다. 2014-2015 V리그 한국도로공사 드래프트 1라운드 3순위로 여자 프로배구에 발을 디뎠고 2021년 페퍼스 창단과 동시에 합류했다.

하혜진의 포지션은 도로공사 시절만 해도 아포짓 스파이커였지만 2021-2022 시즌부터 미들블로커로 포지션을 변경했다.

하혜진은 “장 감독님도 미들블로커 출신이셔서 코칭을 잘 해주신다. 한유미 코치님도 선수 입장에서 살펴봐 주시고, 경험도 자주 들려주신다”라며 “두 분 다 부드러울 땐 부드러우신데, 운동이나 훈련할 때는 카리스마 있으시다”라고 설명했다.

지난 시즌과 비교했을 때 블로킹에서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고 싶다는 그는 블로킹 직전 손 모양 하

나까지 신경 쓰는 등 디테일하게 접근하고 있다.

하혜진은 “경기당 블로킹 성공 3개는 잡고 가자는 생각으로 집중하고 있다. 블로킹을 끌어올려야 한다는 생각이다”라며 “(경기를 하다 보면) 세터가 (공을) 올려주는 등 다른 선수들에게 도움받을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블로킹은 혼자 하는 거다. 할 수 있는 최대치를 끌어올려야 팀에 도움이 되고 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강조했다.

하혜진은 오는 7월 한국에 입국해 페퍼스에 합류하는 2020 도쿄올림픽 일본 국가대표 출신 시마무라 하루오에게 많이 배우고 싶다고 언급했다.

페퍼스는 아시아쿼터 드래프트에서 지명했던 스테파니 와일리의 부상이 악화됨에 따라 지난달 NEC 레드 로켓츠 소속 시마무라를 교체 영입했다.

하혜진은 “장 감독님께서도 시마무라 선수에게 많이 배울 수 있을 거라고 하셨다. 같은 미들블로커 포지션이라서 많이 기대되고, 옆에서 많이 배우고 싶다”라고 말했다.

스트레스 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

하혜진은 “장 감독님이 잠으로 스트레스를 해결

하려 하면 안 되고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 걸 찾아야 한다고 하셨다”라며 “주로 맛있는 걸 먹으면서 푼다. 최근에는 동명동 한식당 중정에 갔는데 정말 맛있어서 선수들한테 추천해 줬다”라며 웃어 보였다.

쉬는 날이면 동료 선수들과 소풍 숲에 가서 야기 자기한 물건을 담아오는 등 작고 귀여운 것에도 진심이다.

올해로 5년째 페퍼스와 함께하고 있는 하혜진의 이번 시즌 목표는 ‘플레이오프 진출’이다.

하혜진은 “팀에 젊은 친구도 많고, 페퍼스만의 밝은 분위기가 있어서 그 자체로 좋은데, 그동안 그럴 못 살렸던 것 같다. 페퍼스의 분위기를 살리면서 포기하지 않고 승수를 가져가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이번 시즌은 플레이오프에 진출하고 싶다”고 비장하게 말했다.

이어 “페퍼스 팬분들께서 항상 선수들과 같은 마음, 같은 목표로 응원해 주시고 달려와 주셨다. 올 시즌에도 같은 목표로 달려갈 수 있게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팬들에 대한 마음을 전했다.

/글·사진=김다민 기자 kdi@kwangju.co.kr

전국 남녀 공사들 광주서 실력 겨룬다

내일 대통령기 양궁대회…30일 국대 이벤트 경기 진행도

‘광주 2025 현대세계양궁선수권대회’를 3개월여 앞두고 광주에서 대통령기 양궁대회가 개최된다.

‘제43회 대통령기 전국 남녀 양궁대회’가 오는 24일부터 29일까지 광주국제양궁장과 국립아시아문화전당 5·18 민주광장에서 펼쳐진다.

고등·대학·일반부 600여 명이 참가하는 이번 대회의 예선전은 광주국제양궁장에서, 결승전은 5·18 민주광장에서 치러진다.

24일 개회식 이후 25일부터 28일까지 리커브와

컴파운드 경기가 광주국제양궁장에서 열린다.

28일에는 광주국제양궁장에서 혼성단체 시상식이, 29일에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 5·18 민주광장에서 리커브와 컴파운드 개인·단체 결승전과 시상식이 치러진다.

대회가 끝나고 30일부터는 안산, 김우진 등 양궁 국가대표를 만나볼 수 있는 이벤트 경기가 진행된다.

오는 9월 ‘광주 2025 현대 세계양궁선수권대회’ 결승전이 5·18 민주광장에서 거행된다는 점에

서 한국 국가대표 선수 전원이 세계대회 테스트 경기 차 5·18 민주광장에서 해외 우수선수·전국 양궁대회 우승자와 실력을 겨룬다.

30일 오전에는 컴파운드 경기가, 오후에는 리커브 경기가 예정돼 있다.

오전 10시 여자 컴파운드 국가대표 소채원·심수인·한소연의 경기 이후 오전 10시 52분부터 최윤희·김중호·최은규 등 남자 컴파운드 국가대표의 경기가 치러진다.

대통령기 우승 팀과의 맞대결 방식으로 이뤄지는 안산, 임시현, 강재영 등 여자 리커브 국가대표의 경기는 오후 1시 40분부터, 김우진과 이우석, 김제태 등 남자 리커브 국가대표의 경기는 오후 2시 6분부터 만나볼 수 있다.

/김다민 기자 kdi@kwangju.co.kr

페퍼스, 채선아·오선에 방출

여자프로배구 페퍼저축은행 AI페퍼스의 아웃사이드 히터 채선아(33)와 리베로 오선에(19)가 방출됐다.

페퍼스는 채선아와 오선을을 전력 외 선수로 판단해 재계약을 하지 않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2011-2012 시즌 IBK기업은행에 입단한 채선아는 2015년 여자배구 국가대표로 선발, 2020-2021 시즌까지 KGC인삼공사에서 활동했다. 이후 2023-2024 시즌 페퍼스에 합류해 29경기에 출전했다.

하지만 2024-2025 시즌에는 개인사정을 이유로 한차례도 코트를 뛰지 않았다.



채선아

오선에

부산여중과 남성여고를 졸업한 오선은은 2024-2025 페퍼저축은행 드래프트 2라운드 5순위로 페퍼스에 합류했지만 지난 시즌 한 번도 출전하지 못했다.

/김다민 기자 kdi@

20년 프로골프 생활 마감한 박희영 “이제는 가족 위해 살아야죠”

KLPGA 더헤븐 끝으로 은퇴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에서 4승,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에서 3승을 올린 박희영(38)이 22일 은퇴했다.

이날 경기도 안산시 더헤븐 컨트리클럽(파72)에서 열린 KLPGA 투어 더헤븐 마스터즈 2라운드를 마치고 박희영은 은퇴식을 했다.

2005년 KLPGA 투어에 발을 디딘 박희영은 20년 동안 프로 골프 선수로 활동했다.

2005년 KLPGA 투어 신인왕에 올랐던 박희영은 2008년부터는 주로 미국에서 뛰었다.

박희영은 3살 아래 박주영과 함께 자매 골퍼로도 유명하다.

2019년 결혼한 박희영은 두살 난 아들을 키우는 엄마 선수이기도 하다.

“시원섭섭하다”는 박희영은 “은퇴한 선배 언니들이 어제 전화해서 은퇴 경기 때 많이 울었다길래 안 울려고 했는데 18번 홀 마치고 나오는데 부모님 보니까 눈물이 나더라”라고 말했다.

18번 홀 그린 밖에 기다리던 동생 박주영이 안아줬을 때도 그는 눈물을 비쳤다.

오는 11월에 둘째를 출산할 예정인 박희영은 “둘째 아이를 임신하면서 은퇴를 생각하게 됐다. 첫째를 키우면서 아이를 남에게 맡기고 연습하러 다니고 대회에 출전하는 생활이 쉽지 않았다. 어떻게 보면 나만을 위해 살 수밖에 없는 게 투어 프로의 생활이다. 이제는 가족을 위해 살아야 할 때라고 느꼈다”고 은퇴의 배경을 설명했다.



박희영이 22일 경기도 안산시 더헤븐 컨트리클럽(파72)에서 열린 KLPGA 투어 더헤븐 마스터즈 2라운드를 마치고 진행된 은퇴식에서 활짝 웃고 있다.

〈KLPGA 제공〉

박희영은 “미국에서 태극기를 휘날리면서 우승 축하를 받았던 게 제일 좋았다. 나라를 대표해서 뛰는 느낌이 있었다”면서 “2020년 ISPS 한타

빅 오픈 우승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 이제 우승이 힘들다 싶어서 거의 포기했을 때 찾아온 우승이었고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집중력을 유지하면 나이를 떠나서 우승할 수 있다고 하는 긍정적인 생각을 할 수 있었던 경험”이라고 말했다.

박희영의 인생 2막은 골프 지도자가 될 전망이다.

“지금도 골프에 대한 열정만큼은 변함이 없다. 아직도 골프장에 오면 설렌다. 못 치면 속상하고 더 잘하고 싶은 마음이 크다”는 박희영은 은퇴한 뒤에도 골프와 떨어져 살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어린 선수들한테 내가 오랫동안 배우고 익힌 것을 가르쳐주고 싶다. 나 역시 시행착오가 있었던 만큼 시행착오를 줄이고 더 행복하게 골프를 할 수 있도록 돕고 싶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내가 경기만 했지 누군가 가르쳐본 적은 없다. 준비를 좀 해야 할 것 같다”며 당장은 지도자로 나서지는 않을 뜻을 내비쳤다.

박희영은 또 “기회가 되면 다시 코스에 나서고 싶다. 은퇴했다고 해서 골프를 끝내는 건 아니다”라고 여지도 남겼다.

/연합뉴스

탁구 임종훈·안재현, WTT 류블라나 우승

세계1위 르브렁 형제 3-0 완파

한국 남자탁구 ‘환상 콤비’인 임종훈-안재현(이상 한국거레소) 조가 ‘월드테이블테니스(WTT) 스타 컨텐더 류블라나 2025’에서 ‘르브렁 형제’를 꺾고 정상에 올랐다.

임종훈-안재현 조는 22일 오전(이하 한국시간) 슬로베니아 류블라나에서 열린 대회 남자복식 결승에서 프랑스의 펠릭스 르브렁-알렉시스 르브렁 조를 3-0(11-9 11-9 12-10)으로 완파하고 우승했다.

이로써 임종훈-안재현 조는 작년 10월 아스타나 아시아선수권에서 한국 선수로는 32년 만에 우승하고 올해 3월 WTT 스타 컨텐더 첸나이를 제패한 데 이어 세 번째로 복식 우승컵을 들어 올렸다.

4강에서 홍콩의 원준탕-첸 블드윈 조를 풀게임 접전 끝에 3-2로 따돌리고 결승에 오른 임종훈-안재현 조는 활짝 호흡을 자랑하는 르브렁 형제를 만나 초반에는 고전했다.

하지만 임종훈이 안정적인 수비로 득점 기회를 만들면 안재현이 파워풀한 공격으로 점수를 쌓아 첫 게임을 공방 끝에 11-9로 가져와 기선을 잡았다.

원손 임종훈과 오른손 안재현의 환상 조합이 시너지 효과를 내며 2게임도 11-9로 따낸 임종훈-안재현 조는 듀스 점전을 펼친 3게임마저 12-10으로 승리하며 3-0 완승으로 우승을 완성했다.

임종훈은 지난주 WTT 컨텐더 스코피에서 파트너를 바꿔 같은 팀 후배 오준성과 호흡을 맞춰 남



WTT 스타 컨텐더 류블라나 남자복식 우승을 합작한 임종훈(왼쪽)과 안재현.

〈WTT 인스타그램 캡처〉

자복식 우승을 차지한 데 이어 이번 대회도 제패해 최강 복식 파트너임을 입증했다.

임종훈은 또 여자 에이스 신유빈(대한항공)과 손발을 맞춘 혼합복식에서도 결승에 진출해 이번 대회 2관왕을 노린다.

임종훈-신유빈 조는 결승에서 브라질의 우고 칼데라노-브루노 다카하시 조와 우승을 다툰다.

/연합뉴스

즐거운

문화 산책

광주예술의전당

문의 062)613-8233

광주시립교향악단 제396회 정기연주회 'Contrast'

일시 : 2025-06-27(금) 19:30

장소 : 광주예술의전당 대극장

문의 : 062-613-8241

GAC 공모전시

별의 항해 : 오혜성 개인전

일시 : 2025-06-05(목)~2025-07-06(토)

공연 있는 날 10:30 ~ 19:30

공연 없는 날 10:00 ~ 18:00

장소 : 광주예술의전당 갤러리

문의 : 062-613-8357